

중국, 충칭(重庆) · 청두(成都)에서 종합개혁시험구(신평구) 본격 실험

1. 개요

- 최근 중국 서부의 충칭직할시(重庆直辖市)와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가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전국도농종합개혁시험구(全国统筹城乡综合配套改革试验区)”로 선정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6월 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충칭시와 청두시에 전국도농종합개혁시험구 설립 비준에 관한 통지(国家发展改革委关于批准重庆市和成都市设立全国统筹城乡综合配套改革试验区的通知)”를 하달함.
- 이번 시험구는 종전부터 일종의 “특구”로 취급되던 2005년 6월 상하이 푸둥신구(浦东新区)와 2006년 5월 톈진 뤼하이신구(滨海新区)가 국가종합개혁시험구로 지정된 이후 세 번째로 지정된 국가종합개혁시험구임.
- 청두시에서 열린(6.9) ‘중국경제 50인 포럼’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양웨이민(杨伟民) 부비서장은 도농 이원화 구조 개혁의 가속화, 조화로운 사회건설과 중서부지역 발전모델의 모색을 위해 도농종합개혁시험구를 설립한다고 그 취지를 밝힘.

- 또한 그는 도농통합발전의 최종목표는 농촌주민 및 농민공과 그 가족이 도시주민과 동일한 권리와 공공서비스 등을 누리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힘.
- 이번 국가종합개혁시험구 선정을 앞두고 어느 지역이 제3의 “신탁구”가 될 것인지는 2007년 상반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음.
- 개혁개방 초기 설립된 경제특구가 오로지 경제성장만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신탁구”로 불리는 국가종합개혁시험구는 경제발전, 사회발전, 도농관계, 토지개발과 환경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혁을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임.
- 이번 “신탁구” 선정은 ‘위에서 아래로(自上而下)’라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전국 19개 이상의 지역¹⁾이 중앙 정부에 시험구 신청을 한 후 양회(两会) 기간 동안의 토론과 현지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됨.

2. 내륙지역 “신탁구” 선정 배경 및 특징

가. 배경

- 중서부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
- 북경시 사회과학원 창메이쑹(长梅松) 부원장은 푸동을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지역과 뱀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환발해경제권은 모두 동부지역이므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서부대개발의 선두지역인 충칭시와 청두시를 선정한 것이라고 밝힘.
- 북경시 사회과학원 웨이수화(魏中华) 부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중앙이 서부지역발전을 매우 중시해왔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충칭시와 청두시를 하나로 엮는 청위(成渝)경제권의 부흥을 통해 중서부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1) 세 번째 신탁구 지정을 앞두고 선전, 충칭, 사천성 청두, 호남성의 창사, 주저우, 상탄 지역 뿐만 아니라 호북성 우한, 항저우, 타이저우, 하페이, 광시, 셴양, 따리엔, 닝보, 광저우개발구, 쑤저우공업원구, 정저우, 신장, 내멍구, 하얼빈, 따리엔 등의 지역에서 신청을 마침.

□ 총칭시와 청두시는 서부대개발과 조화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계승함에 있어 지정학적 조건, 경제적 조건과 체제적 조건이 비교적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

- 중국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서부대개발 대상 지역에서 총칭시와 청두시는 대표적인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범효과는 매우 큼.

□ 2006년 총칭시의 GDP는 3,486억 위안, 청두시는 2,371억 위안으로 중서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교육 및 과학기술 등 측면에서도 가장 앞서고 있음.

- 총칭시의 관리체제는 서부지역 도시 중 비교적 완비된 편이며, 청두시는 최근 도시와 농촌을 총괄하는 개혁 시험을 실시하는 등 풍부한 종합개혁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청두시정부 마오쯔송(毛志雄) 비서장은 6월 9일 기자회견에서 청두시는 2003년부터 도농간 통합 발전을 위한 관련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고, 이미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현지 실사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함.

□ 총칭시와 청두시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지역으로서 도농간 발전격차가 크고 이원구조의 모순이 심각함.

- 총칭시는 3,100만여 명의 인구 중 80% 이상이 농촌 인구이며, 도시주민의 소득은 농촌주민의 소득보다 4배 정도가 높음.

- 총칭시 위원회 왕양(汪洋) 서기는 총칭시를 중국의 경제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축소판에 비유함.

- 청두시는 1,100만여 명의 인구 중 60% 이상이 농촌인구이며, 도시주민의 소득은 농촌주민의 소득보다 2.58배 정도 높음.

나. 기존의 특구와 다른 특징

- 중국 인민대학 지역경제연구소 쑤지우원(孙久文) 교수는 “신평구”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새로운 발전모델과 체제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기존의 특구와 다른 점을 언급
 - 그는 기존 특구는 계획경제의 시대에 대외개방 문제를 해결하고 외자도입을 주요 발전수단으로 삼아 연해지역 발전을 우선시한 반면,
 - “신평구”는 시장경제체제를 완비하는 시기에 경제발전 과정 중 체제적 모순의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혁신을 통하여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힘.

- 이번에 선정된 “신평구”는 재정지원 및 각종 우대정책이 지원되지 않고, 도농종합개혁을 중점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
 - 양웨이민(杨伟民) 부비서장은 ‘중국경제 50인 포럼’서 이번 “신평구”는 기존의 경제특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발표함.
 - 그는 중앙정부가 우대정책이 아닌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혁신과 개혁 시도를 장려함으로써 시험구 지역이 자주권을 가진다고 강조함.
 - 쓰촨성위원회 정책연구실 리호치양(李焱强) 부주임은 이번 시험구 선정은 이론적 근거, 현실적 배경, 보장조건과 중점개혁 분야 등에서 기존특구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함.

3. 주요 반응

- 제3의 “신평구”선정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평구”에 대한 견해차를 보여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번 종합개혁시험구는 우대정책이 부여되지 않고, 지방의 자주개혁 실현에 중점을 둔다는 입장을 표명함.
 - 4월 2일 청두시에서 열린 중국 경제체제개혁 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체제개혁사 공징

위엔(孔徑源) 사장(司長)은 지방정부에게 정책이 부여되어도 제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대정책 요구에 초점을 두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함.

- 종합개혁의 목적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GDP 증가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유인에 의존하지 않고 조화로운 사회발전의 제도체계 건립을 위해 더 넓은 범위에서 개혁시험을 하는 것임.

□ 그러나 각 지방의 “신탁구” 유치 경쟁이 뜨거웠던 이유는 푸둥신구와 뽤하이신구의 경험을 통해 시험구로 선정되면 금융, 토지, 세수, 재정 정책 등에서 많은 특혜가 있을 것으로 각 지방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임.

- 뽤하이신구의 경우 2006년 한 해 동안의 고정자본투자가 864.2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4.7%가 증가하였고 그 중 기초설비 건설에서는 최고의 기록을 세웠음.

- 선전시위원회 리홍쑹(李鴻忠) 서기는 중국과 같이 영토가 광활한 국가에서 각 지역의 지도자가 자신의 지역을 발전의 선두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바램이라고 전함.

- 국가개발위원회 국토개발과 지역경제연구소 소장이자 텐진 뽤하이신구 개발전략 연구 프로젝트 팀 샤오쑤청(肖金成) 팀장은 종합개혁시험구는 선행 시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아 지역경제발전에 유리하다고 밝힘.

□ 충칭시와 청두시는 각각 중점개혁 방향을 발표함.

- 충칭시 발전개혁위원회는 공공재정제도, 호적제도, 토지관리와 사용제도, 사회보장제도, 농촌시장 체제, 행정체제 등 6개 부문을 중심으로 도농종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충칭시 발전개혁위원회 양창위(楊慶育) 주임은 2020년까지 시험구의 1인당 GDP 6,500달러 이상, 도시화율 70%로, 도농주민소득비율을 2.5:1로 만들어 도농의 격차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발표함.

- 청두시 마오쯔쑹(毛志雄) 비서장은 도농통합계획, 건전한 기층자치조직, 도농통합 산업발전, 도농

간 통일된 행정관리체제 건립, 도농의 인프라 건설과 그 관리체제, 도농간 공평한 공공서비스 보장체제, 도농주민의 사회보장체제, 도농간 통일된 호적제도 등 8개 부문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힘.

- 충칭시 통샤오핑(童小平) 부시장은 충칭시는 개혁시험구이기 때문에 우대정책을 발판으로 삼지 않을 것이며, 만약 많은 특혜정책을 바란다면 충칭시의 개혁시험은 그 시범효과를 잃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그는 “신틱구”라는 개념은 언론의 표현이며, 중앙정부는 충칭시를 시험구로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함.

□ 서남교통대학 교수이자 지역경제연구 전문가인 따이빈(戴宾)은 도농격차가 크고 이원구조 모순이 심각한 지역을 선택한 것은 상징적이고 실천적인 의미가 있으며, 신틱구 발전의 핵심문제는 도농 통합 산업발전이라고 강조함.

- 자금보조나 지원을 통한 농촌발전이 아닌 산업발전을 통한 도농통합발전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함.

- 쓰촨성 사회과학원 린링(林凌) 연구원도 이번 시험구 선정은 서부지역의 이원구조 문제 해결과 조화로운 발전 추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도농통합발전에도 지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함.

<참고 자료>

《中国新闻社》, "发改委官员：重庆成都新特区和以往特区别很大", 2007.6.13

《中国网》, "重庆启动全国统筹城乡综合配套改革试验区建设", 2007.6.16

《新华社》, "重庆和成都两市设立统筹城乡综合配套改革试验区", 2007.6.9

《经济观察报》, "新特区当何处着力", 2007.5.21

《新华网》, "重庆成都将设全国统筹城乡综合配套改革试验区", 2007.6.9

《21世纪经济报道》, "发改委设门槛: 综改实验区不同特区", 2007.4.6

《广州日报》, "国家为什么将新改革试验区设在西部", 2007.6.18

《中国经营报》, "综合改革试点集体遭遇“冷处理”", 2007.5.7

《21世纪经济报道》, "五大重点改革领域确定 体制创新以点带面", 2007.4.4